

기관지 질환이 사망의 첫째 원인이 되고 있다.

강이나 수로는 70%가 고갈되고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다.

도시지역의 생활하수 처리율은 20%에도 못미치고 전국의 주요 강은 유독화학물질로 가득차 있으며 오염도가 낮은 강물도 관개용수로도 부적합한 실정이라고 타임은 전했다.

광둥(廣東)성의 주장(珠江)은 흑룡강(黑龍江)으로 불릴 정도로 오염돼 있다.

황허(黃河)의 경우도 1년중 대부분의 기간동안 물줄기가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니 퇴적물로 쌓여 있다.

이때문에 전국 600개 대도시중 3분의 2는 식수난을 겪고 있고 용수 부족으로 인한 산업손실도 연간 28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아직 대부분 석탄 연료가 사용되고 있어 전국토의 30%에 산성비가 내리고 있으며 지난 93년 통계에서도 이미 충칭(重慶) 지역 채소의 4분의 1이 산성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에서 나오는 독가스, 산업재, 배기가스 오염 등으로 대부분의 중국도시들에서는 호흡이 어려울 정도다. 오염에 따른 사망이 매년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세계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북부 간쑤성 란저우의 석유 화학단지에서는 대기오염을 날려보내기 위해 도시 주변에 있는 산을 밀어버릴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한국에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홍콩에 스모그를 가져오는 등 인접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삼림남벌로 땅이 황폐화되고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마구 내버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어려운 생계 유지를 위해 환경오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은 개도국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전체 면적의 7%에 지나지 않는 가용면적에 12억 인구가 살고 있고 에너지의 75%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타임은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생존이 고도성장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환경파괴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경제발전에만 눈이 먼 중국정부가 환경파괴가 무시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지난해 9월 3천600명이 숨지고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한 양자강 대홍수때였다.

장쩌민 국가주석은 당시 처음으로 경제개발과 환경보호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에서도 근년 들어 환경보호운동이 개인차원에서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돼 가고 있지만 경제발전이나 부의 축재가 우선되고 있으며 경제가 침체될수록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타임은 그러나 이런 어려움속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환경보호운동가들이 있는 한 중국은 점차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 삼나무숲 매입 보존키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태평양 연안의 고대 삼나무숲이 미국 정부와 목재회사간의 막판 협상 타결로 별채되지 않고 영구 보존되게 됐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헤드워터스 삼나무숲을 소유한 태평양목재회사와 협상시한인 지난 3월 1일 자정 직전 합의에 도달, 이 삼나무숲 31.2km²와 다른 2개 지역 삼나무숲을 4억8천만달러에 매입하고 이를 보존지역으로

선진국들은 내년 이 가스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그는 다른 오존층 파괴 가스의 농도는 증가세가 멈춰
거나 줄어든 반면 할론가스의 배출 증가로 오존층의 조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일,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법안 마련

일본은 기업들로 하여금 2백여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당국에 보고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3월
8일 보도했다.

통상산업성과 환경청은 기업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함유 여부
를 완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 중 의회에 제
출, 오는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각 업체로 하여금 원료, 중간 생산품에 포함
된 화학물질 목록과 최종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량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제조, 건설, 에너지, 수송, 세탁업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들을 규제대상으로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해 2만여개의 사무실 및 공
장이 이 법안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또 다이옥신 등 독성 물질
배출량에 대한 보고도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지역별, 산업별로 발
표함으로써 개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을 줄여가도록 할 방침이다.

항공기 배출 온실가스 2050년까지 급증

항공교통 운항 증가로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 향후 50년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국제기후변화위원
회가 지난 3월 6일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이 지난 88년
설립한 기후변화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
범인 이산화탄소의 전체 배출량 중에서 항공기 배출이 차
지하는 비중이 현재 2%에서 2050년에는 10%까지 증가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약 1만m 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뿜
어나오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2050년에는 특정 고도의
오존농도의 현재의 2배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존도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의 요인으로 꼽히
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등 전체 온실가스중
항공기 배출 온실가스가 현재의 3.5%에서 2050년에는
17%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항공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항공기 배기가스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경
우 항공기 배출 온실가스의 양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
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기 배기가스 배출 억제 방안을 담은 이 보고서는
다음달 코스타리카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위원회 회의에
서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
의에서 채택된 교토의 정서에는 국제노선 운항 항공기 배
기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